

사회자본과 화교경제: 캘리포니아주 한인 및 중국계은행의 비교를 중심으로

안현효*

요약: 본 연구는 미국에서 화교가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 중의 한 곳인 캘리포니아 주 화교 은행의 성장과 수익성의 경제적 실적을 한인 은행과 비교하여 그러한 실적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화교사회자본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소수계민족은행은 소수계민족경제 번영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밝혀져 왔다. 그러나 역으로 소수계민족은행의 경영전략과 경영실적 역시 소수계민족경제가 가진 특성에 의해 다시 규정된다. 소수계은행은 시장적 은행전략을 취하는 미국의 주류은행과 달리 관계적 은행전략을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인은행과 화교은행은 경영실적과 경영전략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역사적 차이와 동질성/비동질성의 차이 외에도 전자의 경우 사업대출의 비중이, 후자의 경우 부동산 대출의 비중이 높은 것 등의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관계적 은행전략을 넘어서는 양 소수계 민족은행의 경영실적과 경영전략의 차이가 각 민족은행의 시장기반인 소수계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기인한 것임을 밝히며 이를 사회자본으로 개념화한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차이를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와 연결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자본의 차이가 두 소수계은행의 경영행태를 다르게 하여 결과적으로 경영실적의 차이로 나타나게 하는 과정을 추적하여 사회자본 개념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어: 사회자본, 화교경제, 한인계미국은행, 화교미국은행

1. 문제제기

본 연구는 화교사회를 사회자본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의 맥락 속에서 캘리포니아주 화교사회의 사례연구를 통해 화교사회의 진화 속에서 사회자본의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화교사회 더 넓게는 동아시아 사회의 경제발전을 사회자본 개념을 활용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많으나 이는 사회자본 개념 자체를 포함하여 매우 논쟁적인 쟁점들을 안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화교사회에 관한 연구는 중국사회에 전통적인 관시(Guanxi: 關係)가 가진 혈연, 지연, 업연망을 주목하는데 현대 자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관시의 역할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문제된다. 관시는 전통적인 사회의 잔재로서 자본주의와 시장이 확장되면서 없어질 것인지 또는 관시의 약화와 시장의 확대를 동일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시는 자본주의 확산에 장애가 아니었고 오히려 자본주의를 도입하는데 촉진하는 기능을 했으며 자본

본 연구는 2009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No.20090366)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 대구대학교, 일반사회교육학과(경제학), 부교수

주의 발전에도 관시는 소멸하기는 커녕 변화하고 진화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라 할 것이다.

이는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자체가 가진 쟁점이기도 하다. 사회자본 역시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요소로서 이해하는 경우와 오히려 경제의 성취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해석하는 등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미국 화교경제(금융권)를 사례로서 분석하여 사회자본의 개념을 좀 더 정교하게 이해하고, 사회자본 개념과 관련하여 제기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사회자본 논의의 맥락을 사회자본 개념이 출현한 배경에서 출발하여, 중국의 관시에 관한 논의까지 정리해봄으로써 사회자본 개념이 단순히 경제발전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회적 참여와 관련된 문제의식이라는 점을 밝힌다. 제3절은 필자가 캘리포니아주의 소수민족은행에 대해 지난 10년간 공동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계 은행자본과 한국계 은행자본의 비교연구를 요약함으로써 아시아계 이민사회의 독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4절은 3절의 관찰에 기초하여 중국계 및 한국계 은행자본 차이의 배후에 놓인 사회자본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5절은 이를 통해 화교 사회자본 개념의 심화된 이해를 시도한다. 본고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화교의 사회자본, 즉 전통적인 사회적 관계가 기존의 폐쇄적 형태에서 개방적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가설을 주장하고자 한다.

2. 이론적 쟁점

최근 사회자본 개념은 사회과학의 전 분야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자본 개념 자체에 관한 논의에서 많이 지적되었듯이(김상준, 2004; 최종렬, 2004) 그 개념은 사용자에 따라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사회자본의 개념이 우선 확정될 필요가 있다.¹⁾

사회자본 논의는 프랑스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뒤외에서 이어지는 비판적 관점과 합리적 선택과 신고전파를 받아들이는 제임스 콜만에서 이어지는 신고전파적 관점이라는 대립적 이해가 있다.

부르뒤외의 경우 마르크스의 구조론적 이해를 미시적 관점과 통합하기 위해 문화자본²⁾ 및 사회자본³⁾ 개념을 도입하였다. 부르뒤외는 사회적 구조인 장(場)을 구성하는 미시적 행위적 차원에 이기심의 코나투스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연결하는 축매로서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설명한다.⁴⁾ 이 아비투스가 일종의 사회자본인 셈이다. 물론 부르뒤외가 이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것은 왜 자본주의에서 계급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요컨대 매일의 미시적 실천의 결과로서 자본주의적 계급이 형성되는 과정을 포착하고자 한 것이다.

반면 합리적 선택 개념을 수용하는 사회학자인 콜만의 경우 슐츠, 베커 등의 신고전파 경제학자의 인적자본(human capital) 개념을 발전시켜 사회자본 개념을 도입한다. 콜만은 사회자본을 “만약 이것이 없이는 나타날 수 없었던 경제적 거래를 촉진하는 사회적 관계”(Coleman, 1988)로 규정하면서 부르뒤외와는 정반대의 관점에서 사회자본을 정의한다. 즉 여기서 사회자본은 철저히 생산적 자본(productive social network)이다. 단, 이 사회자본은 인적자본과 달리 주체에게 내재한 것이 아니라 주체 간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점이 인적자본과 다르다. 또 이것이 경제적 자본과 다른 것은 물적자본과 화폐자본의 형태를 띠지 않고 인적 네트워크라는 점이다.

콜만에게 있어서 사회자본 개념은 이미 측정 가능해야 하는 조작적 개념이 된다. 그런데 이 순간부터 사회자본 개념은 매우 다양한 이해에 노출되었다. 이를테면 인적 네트워크는 매우 다양하다. 사적인 네트워크도 있고 공적인 네트워크도 있으며, 폐쇄적인 것 개방적인 것, 정치적인 것, 문화적인 것, 느슨한 것과 긴밀한 것 등 다양한데 이 중 어떤 것이 더욱 생산적인지는 실증적으로도 이론적으로 논란이 매우 많은

형편이다.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남의 사회자본 개념은 콜만의 개념을 중심으로 신제도학과와 게임이론 등 주류경제학의 한계지점에서 출발하고 있으므로 비판적 관점과 주류적 관점의 중간 쪼음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퍼트남 역시 사회자본을 “신뢰, 규준, 네트워크 등 주체의 행동을 조정하여 줌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 조직의 특성 (Putnam, 1993)”으로 정의하여 사회자본의 생산적 기능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콜만의 개념 기초 위에 있다. 하지만 퍼트남이 콜만의 논의에 기초한 것은 사회자본 개념을 도입할 때 신제도학파의 논의를 수용하면서라고 보여지는데, 동시에 그는 토크빌류의 공화주의를 이에 결합시키려고 하는 등 사회자본 개념의 계보학 면에서 보면 콜만과 동일시 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 퍼트남의 관심은 단순히 경제적 성과에 있는 것만은 아니며, 포괄적으로 사회의 성과라는 점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퍼트남이 효율성을 이야기 한다는 점에서는 콜만과 유사하지만 그 효율성이 단순히 경제적 수사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콜만과 구분된다. 그것은 퍼트남의 이후의 저작과 연구를 통해서 봐도 명확하다. 이를테면 1993년의 연구(Putnam, 1993)는 통상 알려진 바와는 달리 이탈리아의 정치적 성과인 공공정책의 효율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2000년의 연구(Putnam, 2000) 역시 미국 사회에서 공동체적 기반인 사회적 참여의 붕괴에 대한 것이다. 1993년 저작에서는 사회자본을 특수적/일반적, 수직적/수평적으로 구분하고 일반적(포괄적) 및 수평적 네트워크를 긍정적 작용을 하는 사회자본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퍼트남의 이 저작의 결론은 이후의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다.

김상준(2004)은 이 세 논자를 소개하면서 이 논자들의 차이보다는 공통점에 더 주목하여 사회자본 개념을 비판한다. 김상준은 이들이 모두 공유하는 지점으로서 ‘자기 이해의 단일동기론’을 지적하는데 이는 이기적 개인으로부터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환원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다. 즉 그에 의하면 사회

자본의 개념을 둘러싼 논점은 이기적 개인주의라는 환원론의 한계다. 이는 사회자본의 형성이 사회 내 개체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관점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론적 과제는 사회자본을 단일 요소로 환원할 것이 아니라 관계의 형성과정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비판은 일리가 있다. 결국 퍼트남(1993)의 경우, 자신이 긍정적으로 본, 참여에 기반한 공화주의적인 사회자본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사회자본 개념을 본격 설명하는 제5장에서 사회자본의 형성을 역사적 기원으로 소급 적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퍼트남이 북부 이탈리아의 사회자본 기원을 중세에까지 소급할 때 사회자본은 주어진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성과가 낮은 사회가 어떻게 참여민주주의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을까라는 토크빌식의 공화주의적 이상을 고민해 온 퍼트남의 실천적 문제의식과 대립한다. 그러나 부르뒤외, 콜만, 퍼트남을 모두 동일한 입장으로 정리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퍼트남의 실천적 과제 그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탈리아의 남부지역에서는—인용자] 사람들이 ‘나’는 많이 생각하지만 ‘우리’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빈곤과 상호불신이 결합되어 수평적 유대의 형성을 방해하였고 또 한 뱀필드가 ‘비도덕적 가족주의’라고 부른 것을 형성하였다. 태로우에 의하면, ‘인구가 과도한 대농장제경제에서 마을광장은 일종의 고용 사무소였으며, 거기서 운이 좋은 소수만이 운이 나쁜 이웃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루치 노동일을 찾을 수 있었다.’ ‘각자는 딴 사람과는 달라져 갔다. 그는 일자리나 조그만 땅을 경작하는 일을 구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 점점 더 매몰되어 갔고, 계급 유대나 전체의 삶에는 점점 더 적게 참여하였으며 오로지 자신과 가족의 생활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시민성

이 있는 에밀리아-로마냐에 사는 토지없는 농업노동자와 대조되는데, 이들은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하였어도 서로 나누어 가며 일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협동조합을 결성하였다.”(Putnam, 1993, p.228)

이러한 실천적 관심은 신자유주의가 팽배한 오늘날의 세계체제 속에서 매우 적절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심이 어디에 착목해야 하는가이다. 퍼트남 자신이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대상을 옮기고, 수많은 사회자본 연구자들이 전 세계의 다양한 사례 연구를 촉발하고 있다.⁵⁾ 핵심은 퍼트남이 고민한 바와 같이 개인주의적 경쟁의 폐해를 극복할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발견에 있다. 사회적 관계 그 자체에는 긍정적, 부정적인 것이 모두 발견될 수 있지만 가치로운 것은 바로 긍정적 성과를 보여주는 사회적 관계인 것이다. 긍정적 성과는 경제적인 성과일 수도 있고 정치적 성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회적 성취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호혜, 연대, 협동과 같은 특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특성이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사회자본이 이념적으로 선형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발명품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회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사례로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경쟁주의의 대안 속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아시아의 관시에 대한 연구는 이 맥락 속에서 주목된다. 관시란 일종의 연줄로 볼 수 있는데, 혈연, 지연, 업연이라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관시에 대해서는 중국자본주의 성립과정에서 나타난 피치못할 제도적 요소이나 부정부패의 연줄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거래비용을 절감해줌으로써 사실상 자본축적에 기여했다고 보는 대조적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관시는 이 두가지 속성을 모두 가진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즉 부정적 측면으로는 관시 구축에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 외부에 대해 배타적 네트워크라는 점,

연고자본주의와 같은 부패의 원인이 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고, 긍정적 측면으로는 거래비용을 줄이는 정보효율적인 네트워크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포괄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사회자본 개념이 주목되고 있다. 사회자본을 퍼트남과 같이 “신뢰, 규준, 네트워크 등 주체의 행동을 조정하여 줌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 조직”이라고 본다면 관시는 신용(信用)과 체면(面子), 호혜성(報答)으로 구성되어 (비록 사회자본의 여러 사례는 개방적, 수평적 네트워크도 존재하는데 반해 관시는 수직적이고, 폐쇄적이라는 특성이 있어 완전히 동일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사회자본의 신뢰, 규준, 네트워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인갑(2002)은 관시의 하나인 지연망에 주목하여 이를 사회자본 개념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관시는 장기간의 신뢰 검증을 거친 사회적 관계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함과 동시에 배타적 연결망에 기초하여 기존의 사회, 경제적 구조를 유지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관시 자체가 사회자본의 중구적 발현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전인갑, 2002, p.198)

그러나 사회자본 연구에 좋은 사회자본과 나쁜 사회자본의 문제를 구별하는 문제가 있듯이 관시도 양면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관시가 중국에서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한 생산적, 긍정적 측면의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지연망이라는-인용자] 문화적 토대가 경제적 토대 즉 사회자본으로 기능하게 되는 실태를 규명 ... (하여) ... 지연에 기초하여 형성되어 장기간의 신뢰 검증 과정을 거쳐 다져진 지연망이 기업 활동의 안정성과 연속성,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것이 단순

히 중국 특유의 사회적 관계라거나 중국 특유의 문화 현상이라는 차원을 넘어 자본주의적 근대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자본의 하나로 기능하게 되는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전인갑, 2002, p.199)

구체적으로는 기업 경영의 합과(合夥) 관행을 지연망에서 사회자본으로 전화되는 매개고리로 이해한다. 합과는 오늘날의 합자회사와 비슷하지만 매년 일정한 출자금의 일정한 비율(예컨대 년 10% 정도)을 투자자(고동)에게 선지불한다는 의미에서 채권의 성격도 갖는 것이었다. 물론 수입에 비용을 제한 경상이익에 대해서는 지분대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 주식과 같다. 그런데 일반적 주식회사와는 달리 투자자는 무한책임을 지게 되어 전문경영인에 해당하는 경리(經理)를 매우 믿을 만한 사람으로 뽑아야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뢰라는 사회자본적 요소가 필요하게 되었고, 지연망은 이러한 사회자본을 제공하는 기반이 되었다.

전인갑(2002)은 판시의 한 사례인 지연망을 분석하여 여기서 합과 관행을 찾아 지연망이 사회자본으로 전화되는 구체적 고리를 찾고자 했다. 그런데 그의 분석에서 사회자본 그 자체가 이론적 위치를 제대로 부여 받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합과의 사회자본적 측면은 자본주의적 재생산과만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회자본은 자본주의적 재

생산에 일정정도 기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사회자본론자들이 주목한 것은 경제적 성취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경제적 성취라는 목적이 잘 달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정치, 경제 외에 사회의 발견이 사회자본 개념에 가로놓여 있다.

즉 퍼트남이 지적하듯이 일차적으로는 시장주의, 자유주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신자유주의의 전일적 지배에 대한 비판의 의미가 있다. 다만 그 비판이 정통적으로는 국가주의에 의해 왔다면 사회자본론은 자생적인 인적 네트워크에 주목한다는 것이 차이다. 이에 주목함으로써 정치적 성취 조차도 같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의 공동체주의자와 자유주의자 사이의 철학적 논쟁에서는 공동체와 자유는 서로 조화되기 어렵다고 종종 지적된다 ... 그러나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시민적 지역(정치의 효율성과 제도적 성취도가 높고 시민적 참여가 높은 지역 정부들-에밀리아로마냐, 롬바르디아 주 등: 인용자)의 시민들이 공동체의 이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자유주의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역설적이게도, 보다 엄격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비시민적인 지역(반대인 경우의 캄파니아, 칼라브리아 주 등: 인용자)의 비도덕적 개인주의자들인 것이다.” (Putnam, 1993, p.169)

표 1.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와 측정방법

구성요소	하위개념	측정방법	비고
네트워크	일차적집단 이차적집단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 계 시민단체, 직능단체, 동호회	폐쇄적 사회자본 개방적 사회자본
규범, 제도	정치적 제도 법집행제도	의회, 정치제도 경찰, 법원, 검찰	
신뢰	특수한 (사적) 신뢰 보편적(사회적)신뢰	친구, 친척, 고향사람, 이웃 모르는사람(타인종, 타종교인 등)	폐쇄적 사회자본 개방적 사회자본

출전: 김승현, 2006, p.74에서 저자 수정

그러나 이후에 퍼트남이 스스로 지적하듯이 1993년의 저작에서는 사회자본의 긍정적 측면만 단순하게 강조한 경향이 있었다.⁶⁾ 그리하여 퍼트남은 이후 저작(Putnam, 2000)에서 결속적/배타적 (bonding/exclusive) 사회자본과 연계적/개방적(bridging/inclusive) 사회자본을 구분했다(Putnam, 2000, p.25). 표 1은 사회자본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결속적/배타적 측면과 연계적/개방적 측면이라는 도식에 따라 재분류해 본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자본은 이중적 측면을 가지고 있고 양 측면은 상호작용한다. 하지만 결국 사회자본 개념의 의미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과 연대(유대)가 경제적, 정치적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퍼트남은 시민성을 사회자본의 중요요소로서 간주하므로 시민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깊은 정치적 참여는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편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사회자본 개념이 개인주의의 파편화된 경쟁의 결과가 가진 난점을 해결하는데 사회적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자 한다면 동양의 공동체적 관습도 생산적 사회자본일 수 있는가? 또 그런 의미에서 생산적인 사회자본은 어떻게 출현하는가?라는 것이 주요하게 제기되는 질문이다.

본 고에서는 재미중국인(Chinese American)의 경제적 성취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화교에 대한 사회자본적 설명에 새로운 해석을 가하여 사회자본 개념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즉 여기서는 화교 사회자본적 폐쇄적 특성이 진화하여 개방화되고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3. 현상: 미국 내 화교 및 한국계 소수민족은행의 경영실적 차이⁷⁾

재미아시아 이민자들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표 2. 인종별 중위 가구 소득

	2008년	2009년
백인	52,113	51,861
히스패닉 아닌 백인	55,319	54,461
흑인	34,088	32,584
아시아계	65,388	65,469
히스패닉(인종불분)	37,769	38,039

출전: www.census.gov

잘 알려져 있다.

그러한 경제적 성과의 일차적 원인으로는 금융적 자본의 원활한 순환이 지적된다. 즉 같은 소수민족이라고 하더라도 흑인, 라틴계와 달리 아시아 이민들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으로 정착하게 된 배경에는 소수계 민족은행이 배후에 있었다는 것이다. 은행(금융자본)과 경제적 성취(빈곤 등)의 관계(Light & Gold, 2000, p.214)는 미국의 특수한 은행산업의 관행과도 관련된다. 한편에서는 주류은행이 소수민족을 배제하여 소수민족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제약되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소수계 민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형커뮤니티 은행들이 존재할 기반이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⁸⁾

캘리포니아 주에 한정하여 분석한 소수계 민족은행의 연구(Dymski, *et al.* 2010; Li *et al.* 2001; Li, 1999)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은행 281개 중 자산 10억 달러 미만의 커뮤니티 은행은 225개로써 전체 은행의 82.5%를 점하고 있다(2003년 통계). 2010년 현재 캘리포니아 소재 한인 및 화교은행으로서 조사대상 은행 수로는 중국계의 경우 34개(이 중 20개가 active한 은행이다), 한국계 민족은행은 17개(이 중 13개가 active한 은행이다)이다. 중국계와 한국계 민족은행의 평균 자산은 각각 약 19억 8천만 달러(화교)와 12억 2천만 달러(한인계)수준이다. 따라서 두 소수계 은행의 성장은 다른 소수계(흑인, 라티노)와 비교하여 상당히 성공적임을 알 수 있다(자세한 은행의 리스트는 Appendix 참조).⁹⁾

여기서 커뮤니티 은행이라 함은 자산규모가 10억

달러 미만의 은행을 말하며, 자산규모가 20억 달러가 넘으면 주류은행(megabank)라 부르겠다. 소수계 민족은행(ethnobank)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측면 모두에서 규정할 수 있다. 즉, 은행의 시장기반과 주주 구성이 소수계 민족을 중심으로 경영되는 것을 의미한다(Dymski, et al, 2010, p.169).¹⁰⁾

소수계 민족은행과 관련하여 소수계 이민사회에 대한 이론은 1960년대의 사회다윈주의 모델(Park, et al. 1925)에서 출발하여 1970년대에는 내부식민지/민족이동(internal colony/minority succession) 이론으로, 1980년대에는 소수민족앙클레이브/미들맨마이너리티(ethnic-enclave/middleman-minority) 이론으로 발전했다.

소수계 이민사회의 금융자본 축적과 관련해서는 소수계 민족사회에는 계(한국), 회(중국)와 같은 비공식 금융의 역할에 주목하고 바로 이러한 비공식금융으로 인해 은행과 같은 공식금융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로 불필요했다는 논의가 주류였다. 그러나 뎀스키 등(Dymski et al., 2010)에서 잘 지적하고 있듯이 은행과 같은 공식금융은 금융자본의 집적에 비공식 금융제도 보다 효과적이다. 요컨대 소수계민족사회에 공식금융제도가 발전하지 못했다면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발전의 조건이 없어서 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식금융제도의 발전의 요인으로는 대량생산체제의 경쟁력이 저하됨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 대량생산의 직업이 가족기반의 소규모 직업으로 교체되는 미국의 산업구조의 변화, 이민자 내부의 소득, 부, 기술의 이질성, 소수계 민족사회에 대한 주류은행의 방기 등을 들 수 있다.

소수계 민족은행은 미국 전역에서 아프리카계의 경우 31개 은행, 라티노의 경우 19개, 아시아인의 경우 40개를 기록하고 있다.¹¹⁾

아시아계 민족은행의 경우 대부분 미국 대도시의 아시아계 이민지역과 연관되어 있다. 중국계의 경우

표 3. 미국 내 소수계민족은행(2004. 6. 30)

	아프리카계	라티노	아시아계
은행수	31	19	40
지점수	141	316	n.a.
자산(비중)	40억 달러(7%)	200억 달러(35.3%)	161억 달러(28.4%)
예금(비중)	34억 달러(8.5%)	147억 달러(36.8%)	132억 달러(41%)

출전: FDIC

표 4. 캘리포니아 주 중국계, 한인 경제 비교

	중국, LA	중국, SF	한인, LA	한인, SF
인구	408,239	468,736	257,975	57,386
사업체수	53,623	42,523	33,157	7,116
매출(천불)	27,859,208	23,011,026	16,579,492	3,430,015
천명당 사업체	131	91	129	124
천명당 매출	68,242	49,092	64,268	59,771
은행지점수	39	20	79	1
은행당인구수	10,468	23,437	3,266	57,386

출전: US Census 2000 data, 1997 Economic Census, Dymski, et al. 2010 172~173에서 재인용. LA=Los Angeles, SF=San Francisco

최대 이민지역이 뉴욕이다. 그 다음이 샌프란시스코이며 세 번째가 로스앤젤레스이다. 반면 한국계의 경우 최대 이민지역은 로스앤젤레스(한인이민의 32%가 집중되어 있다)이며, 두 번째가 뉴욕이다. 아래 표 4는 캘리포니아 주 중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대도시 지역에 사는 중국계와 한인 이민지역 인구, 사업 수, 은행 수 자료이다.

미국에서 소수계 민족은행으로 최초의 것은 1947년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주택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Broadway Federal Bank가 최초이다. 2차 대전 이후의 전후 호황 속에서도 소수계 민족은 금융자원에 대한 대출차별(redlining) 속에서 접근이 제약되었다는 점은 소수민족은행이 출현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 1960년대가 되자 민권운동의 발발, 백인의 대도심에서의 외곽으로의 이동, 도심의 산업공동화 현상과 함께 아프리카계, 라티노 민족은행이 속속 등장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대도심 발전계획과 일정한 연관을 갖고 있다. 이를테면 1968년 설립된 TELACU는 East Los Angeles의 재개발을 위해 주택금융 및 사업자금 대출 등을 적극 수행했다. 중국이민의 경우 긴 역사를 갖고 있지만 공식금융기관을 보유하게 된 것은 1962년에 이르러서였다. 최초의 중국계은행은 Cathay Bank(1962)이며, 두 번째 은행은 East-West Federal Saving(1972)이다.

1965년의 이민법에 의해 아시아계 이민이 대량 유입되자 1970~1980년대 들어서 중국계 및 한인은행의 설립이 러시를 이루게 된다. 중국계 은행의 경우 1970년대 8개가 설립되었으나 1980년대에는 13개가 추가로 설립되었다. 중국계 민족은행의 특징은 이 은행의 다수가 중국이민자들이 가져온 자금을 그 기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계 이민의 이질성(기술적 능력, 출신지역)과 더불어 한인 이민과 비교하여 큰 특징을 이룬다.

한편 한인은행의 경우 최초의 은행이 1974년 California Korea Bank로 설립하였다. 이 은행은 한국외환은행이 LA 한인과 한국 사이의 교역을 돕기 위해 직접 투자로 설립한 것이다. 1982년에 주로 CKB

표 5. LA에서 아프리카, 및 라티노 경제규모

	아프리카계, LA	라티노, SF
인구	1,245,039	6,598,488
사업체수	50,340	200,210
매출(천불)	4,129,219	6,798,698
천명당 사업체	40	30
천명당 매출	3,317	1,030
은행지점수	7	26
은행당인구수	177,863	253,788

출전: 표 4와 동일

의 주요 인력을 기반으로 하되, 한인이민자들의 자본으로 두 번째 한인은행인 Hanmi Bank가 설립된다.¹²⁾ 그리하여 1980년대에 이를 포함하여 4개, 90년대에 2개가 신규로 설립되며 2000년대 들어서 추가로 새로운 은행이 속속 설립되고 있다. 한인은행의 경우 은행의 수는 작지만 평균자산 규모는 중국계은행과 비슷하여 은행 규모가 비교적 균질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한인 이민의 균질성을 반영한다.

미국 전체의 소수계 민족은행의 규모, 수를 비교한 자료 표 3에 의하면 아시아계 은행에 비해 아프리카계, 라티노의 민족은행이 작지 않다. 하지만 이는 인구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아프리카계, 라티노 인구가 훨씬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결국 아시아계 소수민족은행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표 4와 표 5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그림 1은 지난 15년 간 2차례에 걸친 필자의 현지 연구를 토대로 캘리포니아 주의 한인 및 중국계 은행의 성장을 요약한 것이다. 은행의 자산규모를 평균하여 측정한 이 통계에 의하면 중국계 은행의 평균자산이 한국계의 그것과 일관되게 높으나 성장율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성장율은 다른 소수계 은행보다도 높으며 캘리포니아 은행 전체의 평균보다도 높다. 이와 같이 소수민족은행은 중국계와 한인 사회 속에서 크게 성장했다. 필자가 포함된 연구팀의 주된 연구 방향은 바로 이러한 아시아계 소수민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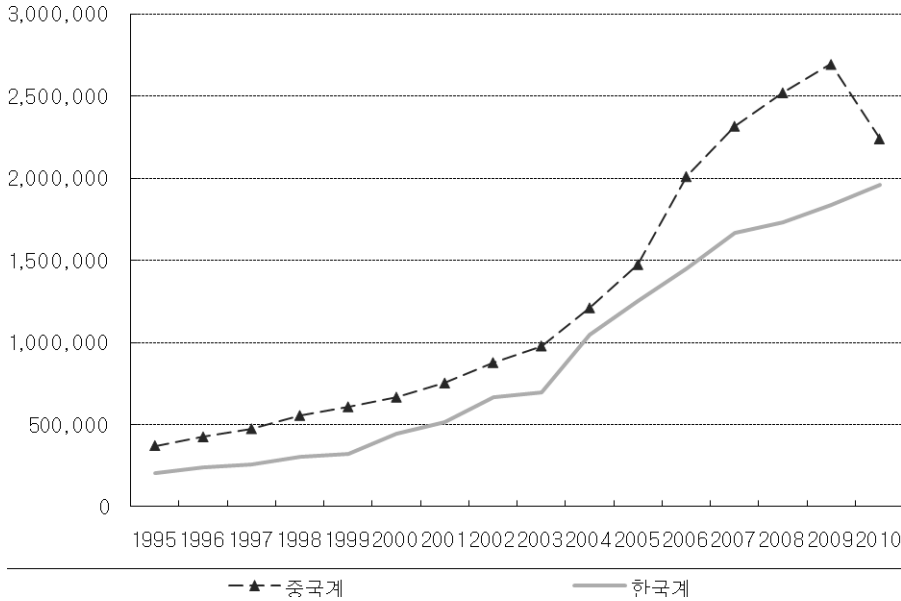


그림 1. 캘리포니아 주 한인 및 중국계 미국은행의 성장 추세(자산의 평균값) (단위: 천 달러)

출전: www.fdic.gov 에서 필자 계산 (이하 동일)

행의 성취를 조사하고 그 효과와 원인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의 주요한 발견은 소수민족은행의 성공은 동족 소수민족을 주된 시장으로 하여 얻어졌으며 또한 이 성취를 바탕으로 동족 소수민족의 경제적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아도 아프리카계, 라티노와 비교하여 중국계와 한인 은행의 기여가 크다.

LA 소재 한인은행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9개 중 7개의 본점은 코리아타운 근처인 윌셔블러바르에 집결해 있다. 지점 역시 한인인구 밀집지역을 따라서 배치되어 있다. 중국계은행 역시 마찬가지로 차이점은 중국계은행은 단순히 이민자의 배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도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계 은행은 중국인 밀집지역이 아니지만 중국계 이민들의 비즈니스가 많은 지역에 지점을 과감하게 설치하고(ex. City of Industry), 중국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도 지점을 설치했다(ex. Beverley Hills). 이러한 중국계 은행의 적극적 역할은 중국계 밀집지역

이 차이나타운에서 그 도심 외곽인 San Gabriel Valley 지역으로 확산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소수계 민족은행은 대체로 은행경영에서 관계은행 (relationship banking) 전략을 선택하였다. 이는 서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일괄적 기준에 기초한 전통적인 방식의 신용평가가 아니라 대출담당자가 소수계 민족사회 내부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대출 (character loans without collateral)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소수계 은행의 대출전략이 관계은행 전략이지만 중국계, 한인은행은 특히 더욱 그러했다. 은행들은 자신의 사업목표를 '동족 커뮤니티의 주민과 기업의 금융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명시화하였다.

소수계 은행에서 대출의 비중 중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은 매우 높다. 특히 중국계 은행의 경우는 부동산대출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는 한편으로는 중국계 은행이 중국계 미국인의 확장을 선도하면서 크게 기여함을 보여주었지만, 부동산경기에 은행의 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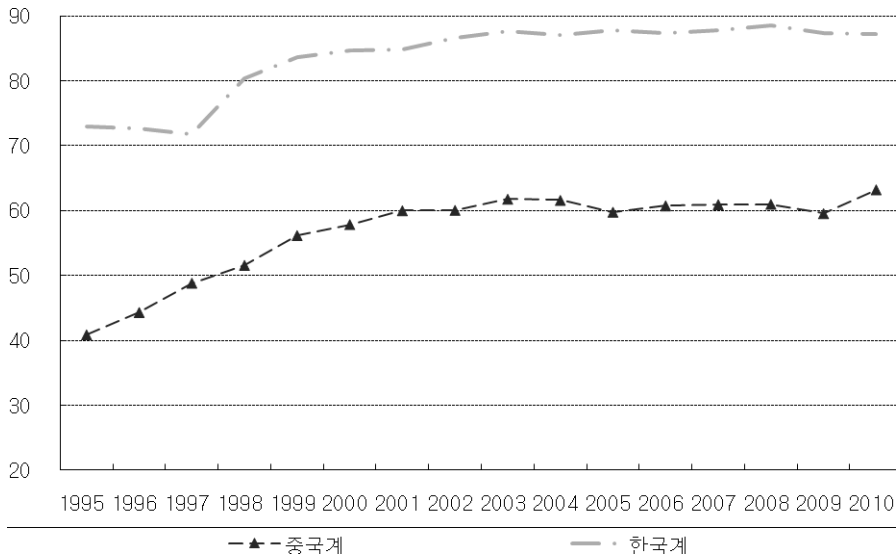


그림 2. 캘리포니아 주 소수계 민족은행의 대출 중 사업대출의 비중 (단위: %)

출전: 그림 1과 동일

이 부침을 겪게 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¹³⁾ 반면 한국계 은행의 경우 사업대출의 비중이 매우 높다. 그림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0년 기준으로 한국계 은행은 전체 대출 중 87%가 사업대출, 12%가 부동산대출인데 반해, 중국계 은행은 63%가 사업대출, 37%가 부동산대출 비중을 갖고 있다.¹⁴⁾ 이러한 한국계 은행의 대출구조는 한국계 은행이 한국계 미국인의 사업구조와 긴밀히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대출의 내용 면에서도 1990년대까지는 리커스토어, 세탁소, 패스트푸드 점에 대한 것이 주된 것이었다면 1990년대 후반부터는 초기 자본 규모가 큰 슈퍼마켓, 제조업으로 대출 대상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조사로부터 딘스키 외(Dymski *et al.*, 2010)는 소수계 민족사회에는 비공식금융(ROSCAs: rotating savings and credit associations, 계, 회와 같은 상호부조적 비공식 금융)이 충분하다는 통념(Light & Gold, 2000)에 반대하고 소수계 민족사회의 경제적 성과를 위해서 은행과 같은 공식금융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4. 해석: 경영실적 차이의 원인으로서는 사회자본의 차이 및 미국 내 화교사회 자본의 진화

3절에서 중국계 및 한인 민족은행의 경제적 성취와 특성, 소수민족사회에 끼친 긍정적 역할을 주로 보았다면 중국계 및 한인 민족은행의 성공 배경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딘스키 외(1998)는 소수계 은행의 각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를 검토하면서 중국계 은행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중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발전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출을 했음(leader)에 반해, 한국계 은행은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을 추종하는 전략(follower)을 통해 성공했음을 주장했다(Leader-follower model). 그러나 그림 3에서 보이듯이 대출 전략의 공격성을 보여주는 예금-대출 비중이 양 그룹 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볼 때 두 소수계 민족은행의 성공을 이 모델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중국계와 한인 은행의 성공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또 경영행태의 차이는 어디에 연유하고 있는가? 필자는 사회자본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며 성공의 원인도 알 수 있다고 보았다(Social Capital Approach).

여기서 사회자본접근이란 결국 한인과 중국계 미국인의 경제적 성취를 그 소수계 커뮤니티의 특성으로 설명한다는 연구방법을 의미한다. 퍼트남(1993)의 정의를 따라 사회자본을 '사회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네트워크, 규준, 신뢰의 체계'라고 할 때 높은 사회자본은 보다 낮은 거래비용과 정보비용을 가능하게 하여 해당 민족은행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용에 의해 더욱 그 가치가 증가하는 수확체증적인 특성을 가질 것이므로 자기강화적인 긍정적 피드백 구조를 가진다. 그리하여 이러한 조건 하에서 소수계 은행들이 관계은행 전략을 취하는 것은 해당 민족네트워크의 정보를 활용하는 점에서 필연적인 귀결이다.

더욱이 공식금융으로서 은행이 가진 경쟁력은 금융적 자본의 축적 능력이므로 사회자본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비공식 금융과 경쟁하지만 금융적 자본의 축적 능력이 월등하다는 점에서 점차 공식금융이 비공식금융을 밀어내고 변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적 이점은 결국 해당 민족 커뮤니티 내에서 주류은행과도 경쟁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하여 주류은행 조차도 해당 민족의 커뮤니티에서 소수계 은행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을 활용하는 관계은행 전략을 채택하고 이중언어자를 은행직원으로서의 채용하는 등의 전략을 취하지 않

표 6. 소수계민족은행의 틈새은행 전략

	주류은행	비공식금융	틈새은행
사회자본	작다	크다	크다
금융자본	크다	작다	중간

출전: Li *et al.*, 2001, p.1928에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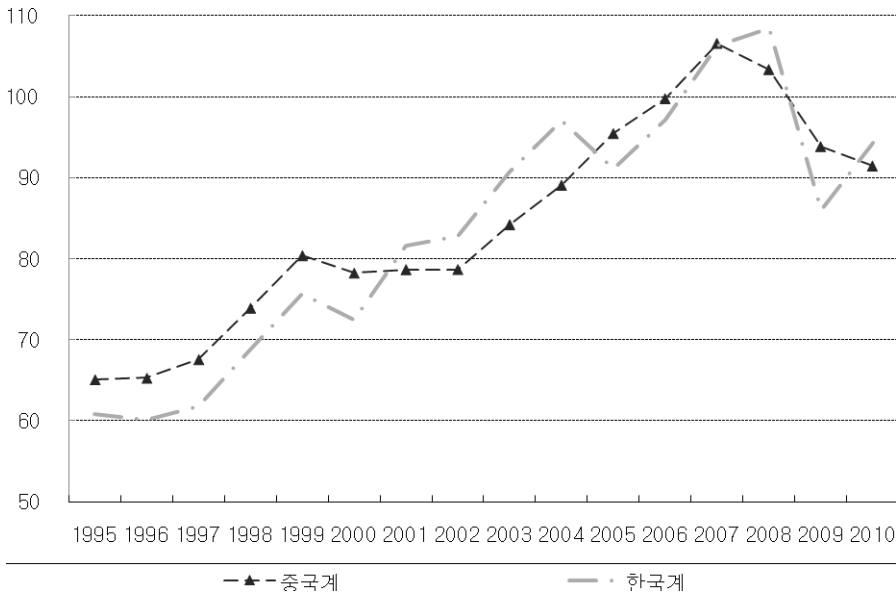


그림 3. 캘리포니아 주 소수계 민족은행의 예금 중 대출의 비율 (단위: %)

출전: 그림 1과 동일

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제 한국계 사회자본과의 비교한 중국계 사회자본의 특성을 살펴보자.

한국계 이민자들은 중국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민족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민족적 구성, 언어, 문화 등이 동질적이면서 심지어는 종교조차도 기독교가 절대 다수를 점한다. 또 다른 특징은 한국계 이민자 경제 내에서 약 75% 이상의 한국계 이민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점이다(Min, eds., 1995, p.227). 이러한 사회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계 이민자들은 내적으로 매우 강한 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역으로 타 인종에 대한 배타성으로 작용한다. 이는 퍼트남이 언급한 폐쇄적/결속적 사회자본과 유사하다.

반대로 중국계 이민자들은 규모와 이민의 역사부터 한국계에 비할 수 없이 길다. 규모 면에서 보면 한국계와 중국계는 약 1:2.4(공식 통계로 100만 명 대 240만 명)에 이르며 이민의 역사는 중국계가 100년이 넘는다. 큰 차이는 출신지 구성이 매우 이질적이라는 점이다. 한국계 이민이 남한으로부터의 이민인데 반해, 중국계의 경우 약 35개 국으로부터의 이민이다. 이 중 중국본토는 31.3%, 대만 29.7%, 인도차이나 반도(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는 18.5%, 홍콩은 10.6% 등이다(Li, 1999). 이러한 이질성은 당연하게도 중국계 미국인 내부의 문화적 차이를 낳는다. 예를 들어 대만으로부터의 화교는 미국으로 이민 올 때 차이타운을 거치지 않고, 바로 SGV(San Gabriel Valley: LA 동쪽에 조성된 도심외곽주거)지역으로 이동하는 사업가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중국본토로부터의 이민은 노동자계급일 가능성이 높다.

화교이민들은 다른 미국으로의 이민자보다 가장 빨리 그리고 광범위한 공동체 조직을 구축했다. 중국인들은 일찍이 동일 지역 출신자들의 모임인 회관을 구성했는데 최초의 회관인, 삼엽회관(三邑會館, Sam Yup Association, Canton Company), 세엽회관(Sze Yup Association)이 1851년에 샌프란시스코에 만들어졌다. 출신지의 동향인들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

며 서로 모여 살았으며 미국 이민시에도 일정한 집성촌을 이루었다. 예를 들어 세엽회관 사람들은 20세기 중반까지 캘리포니아 화교이민의 3/4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몰렸다. 다소 도시화된 삼엽사람들은 소상인이 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세엽사람들은 노동자계급을 구성했다. 이어서 동향인 네트워크가 계속 만들어져서 캘리포니아에서는 6개의 대규모 회관이 구성되었다. 이러한 6개의 회관은 이후 1862년 공소(公所)라는 느슨한 연합체를 구축하여 재미 화교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했다. 이 조직은 이후 미국 내 반중화적인 분위기에 대응하고, 중국인학교를 만드는 등의 활동을 하는 중화회관(中華會館)으로 확대개편되었다.

반대로 한국인 이민들은 초기부터 기독교의 강한 영향하에 있었다. 미국 이민 전부터 기독교를 믿는 경우도 많았으며 최초의 하와이 이민한국인들은 반년 만에 자신만의 목회활동을 시작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자치활동 역시 중국인의 그것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것은 동회(洞會)라는 조직인데, 이 동회조직에는 동장이라는 리더가 있었다. 이민의 초기에는 이러한 지역조직을 기반으로 신민회 등의 정치단체가 결성되어 반제국주의 운동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후 대한국민회가 만들어져 단지 조국의 독립 뿐 아니라 한인이민자의 복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이러한 조직들은 조국 독립뿐 아니라 재미이민자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노력한다는 목적을 모두 명시화하였다(Chan, 1991).

중국계와 한국계의 이민사회의 두 번째 특성은 출신지 본국으로부터의 영향이다. 한국계 이민의 경우에도 한국과의 경제적 교류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에 기초한 이민도 많은 편이지만 이는 중국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1970년대 미국과 중국의 국교수립 이후 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이민이 급증하면서 1975년의 베트남 종전 후의 화교 이민, 1997년의 홍콩 반환을 계기로 하여 홍콩과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의 부유한 화교가 이민할 때 그들은 출신국의 재산도 같이 가져왔다. 이는 중국계

은행의 정기예금 비율이 다른 소수계 은행에 비해 높다는 사실과 중국계 은행의 소수만이 중국계 미국인의 소유이며 다수는 해외 화교자본의 소유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Chee, *et al.* 2003).

반면 한국계 은행의 경우 CKB(한국외환은행의 현지법인)과 CHB America Bank(조흥은행의 현지법인)이었다가, 신한은행에 인수된 후 은행명을 변경)만이 한국자본에 의해 설립되었을 뿐 다른 은행들은 현지 한국계 미국인자본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CKB 조차도 이후에 한미은행에 합병됨으로써 한국자본이 설립한 미국은행은 우리아메리카은행을 포함하여 두개 뿐이다.

두 소수민족의 사회자본이 가진 세 번째 특징은 두 소수민족 이민자 사회 내부의 경제구조의 차이로 나타난다. 중국계의 경우 다양한 출신국에서 오랜 기간 이민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민의 시기 및 출신지 별로 이질성을 가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2차 세계 대전 이전의 화교 이민은 주로 노동자였지만 1970년대 부터

는 대만에서의 유학생 및 부유한 화교의 이민이 시작되고 1980년대부터는 이민이 급증하여 캘리포니아 주는 1980년부터 약 20년 동안 8배의 이민 급증을 겪었다. 이 시기는 캘리포니아 주가 경기 활황과 더불어 부동산 투기가 왕성했다. 중국으로부터의 이민자들은 종래 LA 차이나타운으로 진입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바로 LA 교외지역인 SGV로 이주하였고 여기에 중국계 은행은 단순히 소극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교외지역의 부동산 개발에 적극적,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여기에는 해외 화교의 이주와 더불어 해외 화교 자본의 유입도 큰 역할을 했다. 화교 자본은 위험이 높지 않은 안전한 투자, 즉 부동산 투자를 원했고 중국계 은행을 통해 이러한 투자는 부동산개발과 함께 이루어졌다. 산업구조를 봐도 중국계 이민자의 부동산 및 금융종사자(11% vs. 3%) 및 매출(4% vs. 1%)의 비중은 한국계보다 높다. 또한 본토와의 경제적 교류의 수준을 암시하는 것으로 도매 교역은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9%에 불과하지만 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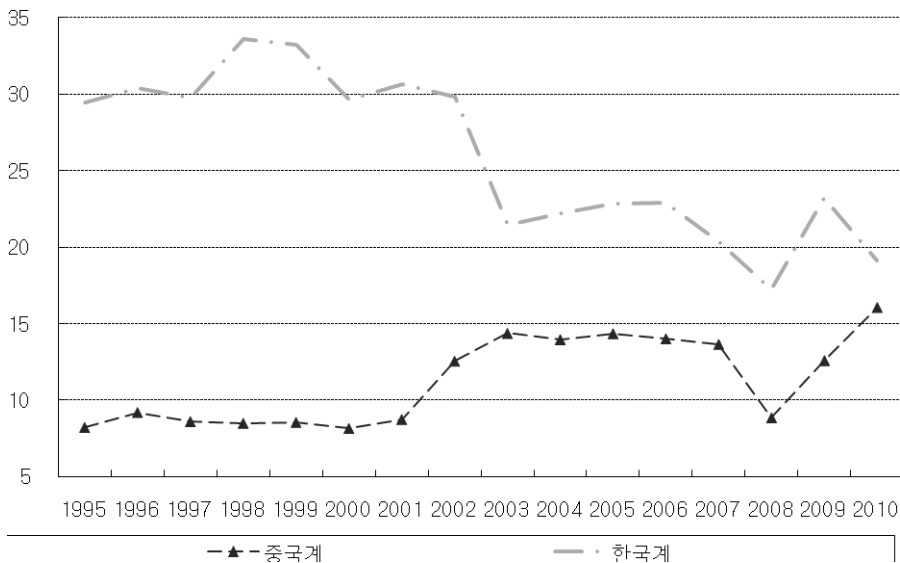


그림 4. 이자넣지 않는 예금의 비중(1995~2010) (단위: %)

출전: 그림 1과 동일

기준으로는 50%를 차지하여 높은 연관성을 보여준다 (Economic Census of the United States, 1997).

한편 화교 이민과 비교할 때, 한국계 이민의 본토 연관성은 중국계보다는 낮다.

또한 한국계 이민들은 압도적 다수인 32%가 소매 유통에 집중되어 있고 매출기준으로도 그 비중은 37%에 달한다. 이는 한국계 이민 다수가 초기에 리커스토어 등에 집중되었던 현실을 반영한다. 리커스토어, 세탁소 등은 원래 중국계, 파키스탄, 유태계 등이 해 왔던 소규모사업(Mom and Pop Business)에 속한다. 이러한 사업은 대개 아프리카계, 히스패닉계 소수민족 공동체에 위치해 있었는데 사업환경이 점차 악화되면서 한국계 새 이민자들이 이를 인수받게 된 것이다. 그러한 인수과정에 필요한 사업정보는 한국계 이민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흘렀다. 그리하여 한국계 이민자들은 소매유통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이민의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 의류, 주유소 등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제조업으로 진출하고 또 규모가 증대하게 된다. 그리하여 한국계 은행의 평균 대출규모도 15만~20만 달러 수준에서 50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한다(Hanmi Bank, 2003).¹⁵⁾

그림 4에서 나타나는 사실은 한국계 은행이 매우 높은 비율로 이자남지 않는 예금이 많다는 점이다. 즉 장기간 물어두는 예금이 아니라 언제든지 입출금이 용이한 예금을 많이 했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이민자들이 주로 영세한 Mom and Pop Business를 하였기 때문에 현금유동성이 높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연구의 대상으로서 로스앤젤레스의 소수계은행(한인, 화교) 경영실적, 경영행태에서 나타나는 중국계 은행전락과 성과의 차이는 결국 중국계 민족사회 내부와 한국계민족사회 내부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보다 자세히는 중국계의 경우, 1) 출신국에서 다양성, 2) 부동산과 소매유통에 집중된 산업적 특성, 3) 해외 자본의 영향이라는 특성을 보여준다. 다양성과 편차가 매우 큰 이질적 사회적 네트워크는 중국계 미국인 사회의 구성적 차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차이에는 해당 소수민족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차이의 원인으로서 소수계코뮤니티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우리는 사회자본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구성적 차이가 그 자체로도 한국계 사회자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개방적일 수 밖에 없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므로 편서와 같은 중국계 사회자본이 폐쇄적이라고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중국계 사회자본은 현재 진화하고 있다. 중국계 사회의 특성은 초기의 차이나타운 등 폐쇄적인 주거 지역에서 SGV의 중국계 이주 등으로 나타나듯이 개방적인 화교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LA 도심에 구성되어 있던 차이나타운은 LA 근교인 SGV지역으로 확산되는 진화과정을 밟고 있다(Li, 1997; 1999). LA의 동쪽 지역인 SGV지역에서 West SGV에 속하는 City of Monterey Park는 종종 “중국인의 Beverly Hills”라고 불리듯이 중국인 집중 지역이다.¹⁶⁾ 또 East SGV에 속하는 Diamond Bar, Hacienda Heights, Rowland Heights, Walnut 등도 중국인 밀집지역이다. 이러한 새로운 근교지역은 중국인 밀집 주거지역이지만 중국인들만의 폐쇄적 지역이 아니라, 히스패닉 등도 많이 모여 있는 소수인종 주거구역(ethnoburb)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진화하는 화교 사회는 최소한 지리적으로는 폐쇄적 구조에서 개방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ity of Monterey Park의 경우 인구 기준으로는 30.8%이 중국계이며, 사업체수로는 56.5%가 중국인 사업체다(Li, 2000).

따라서 이러한 분석과 관찰로부터 우리는 통상 폐쇄적이며, 결속적인 사회자본이라는 특성을 가진 중국계 사회자본이 점차 개방적, 연대적 기반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

5. 결론: 사회자본 개념의 확대, 수정

본 고에서 필자는 첫째, 사회자본 개념이 가진 논점을 정리하여 이를 단순히 경제적 성공의 수단으로 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복지 뿐 아니라 시민적 참여 및 민주주의의 확대 요소로 인식하여 화교 사회자본 논의의 이론적 맥락을 이에 위치하고자 하였다. 둘째, 캘리포니아 화교 금융자본, 즉 은행산업의 발달을 한인의 그것과 비교하여 화교 금융자본의 성취를 살펴보고 성취의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여 이것과 화교 사회자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캘리포니아의 화교 금융자본의 성공과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한인 사회자본과 화교 사회자본을 비교하는 사회자본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화교 사회자본이 가진 전통적 폐쇄성이 진화하고 있는 단서를 차이나타운이라는 소수민족앙클레이브(ethnic enclave)가 소수민족도심외곽(ethnoburb)로 진화하는 과정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본고의 분석은 역사적 기원을 가진 중국적 사회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이러한 특수성이 고착되어 불변의 것이라는 생각을 부인한다. 결국 캘리포니아에 존재하는 화교사회자본의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중국적 사회자본의 과제인 열린 사회자본의 문제, 즉 열린 시민성으로의 진화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전인갑(2002, p.210)도 지적하듯이 지연망이 폐쇄성으로 인해 경영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효율성을 저해하는 효과도 있는데, 이러한 이중성은 단순한 공동체적 연대에서 탈피하여 복잡한 현대에 걸맞는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자본을 통해서만 극복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이는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발견된 '사회'가 재발견되어야만 가능하다. 사회는 단순한 전통적 공동체와 그 규모와 개방성에서 구분되나 참여적 요소에서는 유사하다. 또한 사회는 시장적 연관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관계와는 경쟁이나 협동이냐는 점에서 구별된다. 하지만

규모의 측면과 개방성의 면에서는 공통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사회자본 개념이 모를지기 시민성의 한 요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연대가 아니라 사회의 연대 개념으로 발전해야 한다.

본 고는 화교 사회자본의 진화가능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이는 가설적 수준에 머무른다. 따라서 앞으로 동일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자본의 구체적 형태에 대한 분석, 특히 그 참여적 특성의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¹⁷⁾

주

- 1) 사회자본에 대한 대표적인 논점은 사회발전, 경제발전, 정치발전 등을 해결하는 요술방망이로 이해하는 관점과 부정, 약탈, 정실주의 등으로 보는 부정적 관점의 대립이다. 이는 본 고의 뒤에서 보여지듯이 우리 연구의 대상인 아시아의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아시아에 존재하는 인적 네트워크가 사회자본으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 흐름에 위치 지워져 있으므로 사회자본 그 자체에 관한 연구를 전체 서베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회자본 이론의 쟁점을 간략히 확인하고자 한다.
- 2) 문화자본이란 계급 재생산에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부르뒤외가 지적한 부모 세대의 교육적, 문화적 자원으로서 이는 자식세대로 전이되는 문화, 교양, 취향의 자산이다. 문화자본은 자녀에게 전승되는 지배계급의 문화적 자산이지만 사실상 사회의 다양한 요소로 확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상징자본이라 개념화된다. 사회자본은 이러한 상징자본 중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지칭한다.
- 3) “현실적 또는 잠재적 자원의 집합으로서 상호 면식과 인식이 제도화되고 지속화된 관계망을 소유하는 것 - 즉 특정 집단과의 멤버십 - 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제도화된 관계망은 집단적으로 소유된 자본의 후원, 즉 신용을 부여해주는 보증을 소속원에게 제공한다”(Bourdieu, 1986, p.248~249). 부르뒤외의 개념이 이후의 사회자본 논의와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점은 부르뒤외가 수많은 문화적 자본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본의 재생산

- 에 기여한다고 보는 점이다. 문화자본, 사회자본 등이 “결국 경제적 자본으로 귀속된다는 사실을 잘 숨기는 만큼 더욱 성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Bourdieu, 1986, p.252).
- 4) 코나투스(conatus)는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욕구 내지는 의지를 말하는 것으로 스피노자 철학의 핵심 개념이다. 한편 부르뒤에 사회학의 핵심개념인 아비투스(habitus)는 개인이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획득한 지속적 성향 체계로서, 습관, 성향 등 규칙적이나 무의식적인 행위 양식인 것이다.
- 5) 시장적 거래로 대표되는 분권적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하는 과정이 어떻게 제도화되어 해결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유사한 주제들은 스스로 증식하고 확대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자본’ 개념을 이용한 사회자본 개념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도개념을 통해서 더 잘 볼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사회자본은 제도 개념의 보완물이다. 예를 들면 201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Elinor Ostrom의 저작(Ostrom, 1990)은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공유자원에 대한 감시와 제재장치가 공동규범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사회자본의 형성에 대한 역사적, 제도적 연구의 실례를 보여준다(Ostrom, 1990, pp.86~87). 하지만 본 고에서 특별히 사회자본 개념에 더 주목하는 이유는 정치적 공동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촉매제로서의 사회자본 개념의 가능성 때문이다. 이 점에서 사회자본은 일차적으로 사회적 관계성에 방점이 찍힌다. 물론 자본이라는 용어에서 지배 또는 생산성의 의미가 포함된다.
- 6) “나는 사회자본이 반 사회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출간한 책에서는 간과했다.”(Putnam, 2000, p.24, 주6).
- 7) 본 절은 1998년 필자가 참여하였던 Ethnic Banking Project Team의 공동연구(Gary Dymiski, Maria Chee, Wei Li 등)와 이후 2004년 수행하였던 재미한국계은행에 대한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필자는 연구팀에서 한국계 은행연구를 맡아 두 차례에 걸쳐 재미한국계은행을 인터뷰하여 중국계은행을 연구한 연구자들과 자료를 공유하였다.
- 8) 미국 전역에서 그 예금이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상업은행(투자은행이 아닌)의 개수는 6,676개가 된다. 그 중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 미만의 소형은행, 즉 커뮤니티 은행의 비중은 6,171개로서 92.4%에 이른다(www.fdic.gov, 2010년 6월 30일 통계). 이것은 대형 상업은행 중심으로 편성된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른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한다. 미국 은행 산업의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Dymiski (1999)를 참조하라.
- 9) 2010년 6월 30일자의 통계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주 전체 은행 수는 260개이며, 이 중 자산 규모 10억 달러 미만은 219개로서 84.6%를 점한다. 은행 수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인수합병의 물결 속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었으나 2008년 위기를 계기로 더욱 줄고 있다. 소수계 은행의 통계에서 일본계 민족은행은 예외다. 이는 일본계 민족은행이 글로벌 환경 속에서 주류 은행에 포섭된 것과 일정한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미국-일본 관계 속에서 일본계 미국인들의 소극적 행동과 관련된다.
- 10) 여기에는 소수계 민족의 소속 나라에서 직접 투자한 은행의 현지법인이 포함된다. 현지법인 대다수가 소수계 이민자들의 금융활동에 직접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계와 한국계에는 현지하며 일본계에 대해서는 약화된다.
- 11) 이 자료는 FDIC의 공식 자료이므로 필자가 포함된 연구팀의 캘리포니아 주 조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 12) 한미은행은 한국 소재 한미은행(KorAm Bank)과 다르다. 미국계 은행인 한미은행은 커뮤니티 은행의 규모에 불과했지만 착실한 성장을 거쳐 1997년의 한국경제 금융위기 시 매물로 나온 CKB(이 은행은 Pacific Union Bank로 이름을 바꾸었다)를 인수하여 현재 자산 30억 달러의 중규모 은행의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미국의 한미은행은 지난 2008년의 미국발 서브프라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부실화되어 한국의 우리은행에 인수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은행은 2009년부터 미국 현지법인인 우리아메리카은행을 통해 한미은행과 합의하여 한미은행을 인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2010년 11월 30일 현재 미국 규제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 13)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계 은행의 자산규모의 편차는 한국계은행에 비해 매우 높았다(Ahn & Chung, 2006, p.158).
- 14) 본 고의 조사에 의한 대출의 분포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업대출은 콜리포트(Call Report)상의 Commercial Loan과 Commercial Real Estate Loan을 합한 것이며,

부동산대출은 진정한 모기지 대출만 골라내기 위해서 Residential Loan을 합한 것이다. 부동산대출(Real Estate Loan)이라고 분류된 것은 정확히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므로 이 중 상업부동산대출은 담보를 부동산으로 잡았으나 사업용대출과 같다고 본 것이다.

- 15) 한국계 은행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중소기업 사업금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계 은행은 부동산 대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위험도를 중소기업 사업금융보다 더 높게 보고 있었다. 이는 중소기업 사업대출이 위험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 위험을 낮출 제도적 유인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중소기업대출보증제도(SBA loan)이다. 이는 미국의 중소기업청에서 대출의 대부분을 보증해주는 제도로서 한국계 은행은 SBA loan 승인을 받은 대출을 하기 위한 자격을 대부분 획득하였다.
- 16) 중국인들은 City of Monterey를 羅城蒙市(California State, Monterey City)라 불렀다.
- 17) 또한 관시를 사회자본의 형태로 해석하고 이를 다시 미국 소재 화교의 사회적 특성에 적용하는 문제는 자본주의가 발달한 곳에서의 사회자본과 미발달한 곳에서의 사회자본 간의 진화적 차이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 역시 차후의 연구과제라 하겠다.

참고문헌

김상준, 2004, 부르뒤외, 콜만,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 38(6).

김승현, 2006,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2(2).

전인갑, 2002, 중국 근대기업의 지배구조와 합과 관행, 역사교육 89.

최종렬, 2004,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 한국사회학 38(6).

Abelmann, Nancy, and John Lie., 1995, *Blue Dreams: Korean Americans and the Los Angeles Riot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Ahn, Hyeon-Hyo, 2003, "The Development of Korean American Banks in the context of Ethnic Banking in Southern California", *Journal of American Studies*

(Korea) 35(1), 111-138.

Ahn, Hyeon-Hyo, and Jang-Pyo Hong., 2001, "The Evolution of Korean ethnic banks in California," *Journal of Regional Studies* (Korea) 7(2), 97-120.

Ahn, Hyeon-Hyo, Yun-Sun Chung, 2006, The Financial Development of Korean Americans: A Comparison of Korean and Chinese American Banks in California,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2(1).

Aoki Massahiko and Serdar Dinc., 1997, "Relational Financing as an Institution and its Viability under Competition", mimeo,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Stanford University.

Aoki, Massahiko & Hugh Patrick., 1994, *Japanese Main Bank System*, Oxford, U.K.:Oxford University Press.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Caskey, John P., 1994a, "Bank representation in low-income and minority communities," *Urban Affairs Quarterly* 29, 617-638.

Caskey, John P., 1994b, *Fringe Banking: Checking-Cashing Outlets, Pawnshops and the Poor*.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Chan, S., 1991, *Asian American: An Interpretive History*, Twayne Publishers.

Chang, Edward Tea., 1990, "New Urban Crisis: Korean Black Conflicts in Los Angeles." *Pb. 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hee, M., G, Dymiskiand W. Li., 2003, "Asia in Los Angeles: Ethnic Chinese Banking in the Age of Globalization," *unpublished article*.

CKB, 1997, Annual Report, California Korea Bank.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Dymski, Gary, and John Veitch, 1996, "Financial Transformation and the Metropolis: Booms, Busts, and Banking in Los Angeles," *Environment and*

- Planning A* 28(7) July, 1233-1260.
- Dymski, Gary, Wei Li and Yu Zhou, 1998, "Ethnobanks and Ethnoburbs in Los Angeles County: A Framework and Initial Empirical Finding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Boston, MA.
- Dymski, Gary, Wei Li, Carolyn Aldana and Hyeon-Hyo Ahn, 2010, "Ethnobanking in the USA: from antidiscrimination vehicles to transnational ent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Globalisation* 4(2).
- Dymski, Gary., 1999, *The Bank Merger Wave: The Economic Causes and Social Consequences of Financial Consolidation*. Armonk, NY: M.E. Sharpe.
- FDIC, 2010, www.fdic.gov,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Washington, DC.
- Fong, T., 1994, *The First Suburban Chinatown: the remaking of Monterey Park, California*, Temple University Press, Philadelphia, PA.
- Geertz, C., 1956, *The Rotating Credit Association: An Instrument for Developmen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Cambridge.
- Hanmi Bank., 2003, *Hanmi Bank 20 Years*. 2003.
- Li, Wei, Gary Dymki., 2002, "Globally Connected and Locally Embedded Financial Institutions: Analyzing the ethnic Chinese banking sector." In Eric Fong ed., *Chinese Ethnic Economy: Global and Local Perspectives*,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 Li, Wei, Yu Zhou, Gary Dymki, and Maria Chee., 2001, "Banking on Social Capital in the Era of Globalization Chinese ethnobanks in Los Angel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33(4), pp.1923-1948.
- Li, Wei., 1997, "Spacial Transformation of an Urban Ethnic Community From Chinatown to Chinese Ethnoburb in Los Ange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CA.
- Li, Wei., 1999, "Building Ethnoburbia: The Emergence and Manifestation of the Chinese Ethnoburb in Los Angeles San Gabriel Valley," *Journal of Asian American Studies* 2(1), pp.1-28.
- Light, I. H., 1972, *Ethnic enterprise in America: Business and welfare among Chinese, Japanese, and Black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ight, Ivan & Steven J. Gold., 2000, *Ethnic Economies*,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Light, Ivan and Edna Bonacich., 1988, *Immigrant Entrepreneurs: Koreans in Los Angeles 1965-1982*,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in, Pyong Gap. ed., 1995, "Korean Americans," *In Asian Americans: Contemporary Trends and Issues*, Sage Publications, Inc.
- Min, Pyong Gap., 1996, *Caught in the Middle: Korean Communitie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Ostrom, Elinor, 1990, *Governing the Commons* (윤홍근 역, 1999, 집합행동과 자치제도, 자유기업센터).
- Park, K., 1997, *The Korean American Dream*, Cornell University Press.
- Peterson and Rajan, R., 1994, "The Benefits of Lending Relationships: Evidence from Small Business Data," *Journal of Finance* 49(1), pp.3-37.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안청시 외 역, 2000,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New York: Touchstone Book (정승현 역, 2009, 나홀로 볼링, 페이퍼로드).
- Rajan R., 1992, "Insiders and Outsiders: The Choice between informed and Arm's-Length Debt", *Journal of Finance* 47(4), pp.1367-1400.
- Smith, C. J., 1995, "Asian New York: The Geography and Politics of diversity," *Th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New York: vol. 29.
- Yoon, In-Jin, 1996, *On My Own: Korean Businesses and Race Relations in America*,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교신: 안현호,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전화: 053-850-4147, 010-7234-6251, 팩스: 053-850-4141, 이메일: harryahn@daegu.ac.kr

850-4147, +82-10-7234-6251, Fax: +82-53-850-4141,
e-mail: harryahn@daegu.ac.kr

Correspondence: Ahn Hyeon-Hyo, 15 Naeri, Jinryang,
Gyongsan, Cyoungbuk, 712-714, Korea, Tel: +82-53-

최초투고일 2010년 10월 2일
최종접수일 2010년 11월 30일

Appendix 1. Korean American Banks in California

(unit: number, million dollars)

Korean American Banks	HQ	No of branches 6/30/99	No of branches 06/30/10	Assets 6/30/99	Assets 06/30/10	No of Employees 06/30/10	Establishment
Pacific Union Bank*	Los Angeles	10	13 (04/01/04)	593.8	1,294.280 (04/01/04)	280 (04/01/04)	Sep-74
Wilshire State Bank	Los Angeles	5	24	300.5	3,433.818	416	Dec-80
Hanmi Bank	Los Angeles	10	28	739.7	2,907.224	471	Dec-82
Center Bank	Los Angeles	4	23	361.7	2,273.545	316	Mar-86
California ChoHung Bank*	Los Angeles	1	15	89.3	973.832	209	Oct-88
Nara Bank	Los Angeles	6	24	358.9	2,897.988	347	Jun-89
Saehan Bank	Los Angeles	2	11	121.5	676.781	127	Jun-91
Asiana Bank*	Sunnyvale	1	2	19.6	36500	15	Feb-99
Uniti Bank	Buena Park	n/a	3	n/a	191.8	52	Dec-01
Mirae Bank*	Los Angeles	n/a	4	n/a	480.619	98	Aug-02
Pacific City Bank	Los Angeles	n/a	7	n/a	545.448	111	Sep-03
Shinhan Bank America	New York		15		973,832	209	Oct-90
CommonWealth Business Bank	Los Angeles		3		367,332	48	Mar-05
US Metro Bank	Garden Grove		1		108,035	17	Sep-06
WooRi America Bank	New York		18		1,074,355	218	Jun-84
First Standard Bank	Los Angeles		1		125,197	28	Jun-05
Innovative Bank*	Oakland		4 (03/31/10)		266,816 (03/31/10)	82 (03/31/10)	Jul-82

- 1) Pacific Union Bank* was merged into Hanmi Bank on May 1, 2004.
- 2) California ChoHung Bank* was merged into CHB America Bank on March 24, 2003.
- 3) Asiana Bank* was merged into Nara Bank on August 25, 2003.
- 4) Mirae Bank* was merged into Wilshire State Bank on June 26, 2009.
- 5) Innovative Bank was closed in 2010.

Source: FDIC (www.fdic.gov)

Appendix 2. Chinese American Banks in California

(unit: number, million dollars)

Chinese American Banks	HQ	No of branches 6/30/99	No of branches 06/30/10	Assets 6/30/99	Assets 06/30/10	No of Employees 06/30/10	Establishment
Bank of Canton of California*	San Francisco	2	12 (12/31/01)	910.4	1,324,260 (12/31/01)	153 (12/31/01)	May-37
Universal Bank*	West Covina	7	n/a	359.5	537,284	92	Nov-54
Cathay Bank	Los Angeles	10	53	1,995.5	11,397,257	939	Apr-62
Chinatrust Bank (U.S.A.)	Torrance	7	15	1,305.9	1,766,593	296	Apr-65
East West Bank International	Los Angeles	20	137	2,150.3	19,987,475	2,335	Jun-72
Bank of California*	Los Angeles	6	7	131.2	158,846	69	Apr-73
Far East National Bank	Los Angeles	7	12	856.4	1,666,377	278	Dec-74
Guaranty Bank of Calif.	Los Angeles	3	6	106.6	312,193	77	Nov-76
Trust Bank, f.s.b.*	Monterey Park	3	n/a (06/30/04)	185.6	229,002 (06/30/04)	45 (06/30/04)	Jan-77
First Global Bank*	Los Angeles	n/a	n/a	n/a	n/a	n/a	Jan-78
American Int'l Bank*	Los Angeles	8	n/a (12/31/99)	198.8	n/a (12/31/99)	n/a (12/31/99)	Jul-78
Omni Bank	Alhambra	4	5	189.7	159,908	50	Feb-80
General Bank*	Los Angeles	9	21 (09/30/03)	1,738.5	2,410,383 (09/30/03)	370 (09/30/03)	Mar-80
United Pacific Bank	City of Industry	2	2	151.9	156,157	27	May-82
Los Angeles National Bank	Buena Park	2	5	142.3	217,195	42	Dec-82
Golden Security Bank	Alhambra	1	1	90.3	165,233	20	Dec-82
Grand National Bank**	Alhambra	2	13	142.5	693,861	189	Feb-83
United National Bank*	San Marino	6	11 (06/30/05)	486.0	950,666 (06/30/05)	167 (06/30/05)	Jun-83
Pacific Business Bank*	Santa Fe Springs	7	4 (12/31/02)	176.9	162,663 (12/31/02)	59 (12/31/02)	Apr-84
Eastern Int'l Bank	Los Angeles	2	2	73.5	106,531	28	Feb-85
Standard Bank*	Monterey Park	6	n/a (12/31/05)	701.1	922,548 (12/31/05)	96 (12/31/05)	Jun-85
First Central Bank*	Cerritos	N/a	n/a	n/a	n/a	n/a	Jan-86
United Commercial Bank*	San Francisco	6	66 (09/30/09)	2,282.8	10,895,336 (09/30/09)	1,512 (09/30/09)	Mar-86

Korean American Banks	HQ	No of branches 6/30/99	No of branches 06/30/10	Assets 6/30/99	Assets 06/30/10	No of Employees 06/30/10	Establishment
Lippo Bank*	San Francisco	1	3 (12/31/99)	21.1	86,618 (12/31/99)	60 (12/31/99)	Nov-89
Asian Pacific National Bank	San Gabriel	2	2	39.7	51,280	13	Jul-90
First Continental Bank*	Rosemead	3	4 (06/30/03)	270.6	343,580 (06/30/03)	65 (06/30/03)	Mar-91
First United Bank	San Diego	1	7	75.1	461,910	59	May-91
Preferred Bank	Los Angeles	6	10	496.6	1,323,550	121	Dec-91
Evertrust Bank	City of Industry	2	6	114.3	538,221	75	May-95
First Commercial Bank (USA)	Alhambra	2	7	129.3	458,894	76	May-97
Inter Business Bank*	Los Angeles	n/a	6	n/a	445,570	66	Sep-00
Bank of the Orient	San Francisco		12		633,076	153	Mar-71
Metropolitan Bank	Oakland		4		150,320	36	Dec-84
Gateway Bank, FSB	San Francisco		n/a		338,931	82	Jun-90

- 1) Pacific Business and Universal Bank became Chinese American bank in 1994 and 1980 respectively.
- 2) Bank of Canton of California was merged into First Republic Bank on May 29, 2002.
- 3) First Global Bank was merged into Hanmi Bank on October 1, 1998.
- 4) American Int'l Bank was merged into East West Bank on January 14, 2000.
- 5) General Bank was merged into Cathay Bank on October 20, 2003.
- 6) Pacific Business Bank was merged into East West Bank on March 15, 2003.
- 7) First Central Bank was merged into East West Bank on May 29, 1999.
- 8) Lippo Bank was merged into First Bank of California on May 30, 2000.
- 9) First Continental Bank was merged into United Commercial Bank on July 22, 2003.
- 10) International Bank of California was merged into First Bank on September 30, 2005.
- 11) Guaranty Bank Of California changed its name and is currently doing business as Gbc International Bank.
- 12) Trust Bank (f.s.b) was merged into East West Bank on August 6, 2004.
- 13) Grand National Bank changed its name and is currently doing business as The Bank Of East Asia (USA), National Association.
- 14) United National Bank was merged into East West Bank on September 7, 2005.
- 15) Standard Bank was merged into East West Bank on March 18, 2006.
- 16) United Commercial Bank was merged into East West on November 6, 2009.
- 17) First Continental Bank was merged into East West Bank on July 22, 2003.
- 18) First United Bank changed its name and is currently doing business as Metro United Bank.
- 19) Interbusiness Bank, National Association changed its name and is currently doing business as Tomatobank, National Association.

Source: FDIC (www.fdic.gov)

Social Capital and Overseas Chinese Economy: A Comparison of Korean and Chinese ethnobanks in California

Ahn Hyeon-Hyo*

Abstract : Through the comparative studies on Korean and Chinese ethnobanks in the U.S., this research finds the difference in the social capital between Korean and Chinese American economy and reinterprets the social capital in overseas Chinese. In many ethnic studies, the ethnobanks in the U.S. are thought as the main drive of the economic prosperity in the ethnic communities. For the success of these ethnobanks, the relationship banking of these ethnobanks are contrasted with the arms-length banking of the mainstream U.S. banks. However there are the differences both in performance and business strategies even among different ethnobanks. Contrary to the Korean ethnic banks having much portion of business loans, Chinese ethnic banks have stressed real-estate loans in their loan portfolio. This research regards the differences of business strategies and performance of these ethnobanks as the result of the different social, cultural contexts in each ethnic community. From these findings, we can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in overseas Chinese economy.

Keywords : Social capital, overseas Chinese economy, Korean American bank, Chinese American bank

* Daegu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conomics), Associate Professor